***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***

**10/9 월**

**빌 3:10**  
**10** 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,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,

**딤후 2:11**  
**11** 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. “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,

**롬 8:14-18, 23-25**  
**14** 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.  
**15** 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,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. 이 영 안에서 우리는 “아바 아버지!”라고 외칩니다.  
**16** 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.  
**17** 자녀들이라면 또한 상속자들,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,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. 만일 참으로 그렇게 되려면,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.  
**18** 나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.  
**23** 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,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.  
**24** 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두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.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?  
**25** 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, 인내하면서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.

**10/10 화**

**골 1:24**  
**24** 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,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.

**요 12:24**  
**24** 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.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,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.

**요 10:11, 15, 17-18**  
**11** 나는 선한 목자입니다.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,  
**15** 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.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립니다.  
**17** 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. 왜냐하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.  
**18** 나에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다만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. 나에게는 목숨을 버릴 권위도 있고, 다시 얻을 권위도 있습니다. 이 명령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 받은 것입니다.”

**요 12: 12:23-26**  
**23** 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. “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.  
**24** 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.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,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.  
**25** 자기 혼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, 이 세상에서 자기 혼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혼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.  
**26** 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십시오.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,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.

**10/11 수**

**고후 3:18**  
**18** 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.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.

**고후 4:10, 7-9, 11-12, 15-18**  
**10** 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.   
**7** 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.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.  
**8** 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짓눌리지 않으며, 나갈 길을 찾을 수 없어도 나갈 길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,  
**9** 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,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.  
**11** 이것은 살아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,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.  
**12** 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,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.  
**15** 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.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통하여 풍성해진 은혜로 감사가 넘쳐 나서,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.  
**16** 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.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,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.  
**17** 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,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 냅니다.  
**18** 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,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.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,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.

**10/12 목**

**빌 3:10**  
**10** 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,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,

**롬 6:5**  
**5** 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,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.

**빌 3:7, 9, 12-16**  
**7** 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.  
**9** 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.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,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,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.  
**12** 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,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.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,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.  
**13** 형제님들,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.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.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,  
**14** 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.  
**15** 그러므로 누구든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은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. 만일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일을 생각한다면, 하나님께서 이것도 여러분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.  
**16** 그러나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같은 규칙으로 행합시다.

**10/13 금**

**빌 3:10**  
**10** 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,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,

**갈 2:20**  
**20** 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.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,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.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.

**요 6:57**  
**57** 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,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.

**요 5:19-23**  
**19** 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.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.  
**20** 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므로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 주시며,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 주셔서 여러분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.  
**21** 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어 생명을 주시는 것같이,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.  
**22** 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는데,  
**23** 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같이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.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.

**요 7:16-18**  
**16** 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. “나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니라,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.  
**17** 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,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,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.  
**18** 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,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은 참되며,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습니다.

**10/14 토**

1. **마 16:24**  
   **24** 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,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.
2. **롬 6:3-4**  
   **3** 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?  
   **4** 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,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.
3. **마 16:21-23, 25-27**  
   **21** 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제삼 일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, 제자들에게 알려 주시기 시작하시니,  
   **22** 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한쪽으로 가서 “주님, 그럴 수 없습니다.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!”라고 하며 책망하기 시작하였다.  
   **23** 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베드로에게 “사탄아! 내 뒤로 물러가거라.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. 왜냐하면 네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,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기 때문이다.”라고 말씀하셨다.  
   **25** 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,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  
   **26** 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대가로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면,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?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생명과 바꾸겠습니까?  
   **27** 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,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.
4. **롬 6:5**  
   **5** 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,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.
5. **10/15 주일**
6. **벧전 2:19-25**  
   **19** 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,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슬픔을 참는다면, 그것은 은혜입니다.  
   **20** 여러분이 죄를 짓다가 매를 맞고 견딘다면, 그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?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견딘다면,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입니다.  
   **21** 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.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,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주셨습니다.  
   **22** 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, 그분의 입에서는 속임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.  
   **23** 그분은 욕을 들으셨지만 욕으로 되갚지 않으셨고,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으며,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계속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.  
   **24** 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. 그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.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어 상처 입으심으로써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.  
   **25** 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,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.
7. **벧전 3:14-15**  
   **14** 그러나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,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. 사람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, 걱정하지 마십시오.  
   **15** 오직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,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이유를 듣고자 하는 각 사람에게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.

**찬송: 631 (英) 부활 능력 아는 사람  (中:464)**

**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**

1. **churchinnyc.org/bible-study**